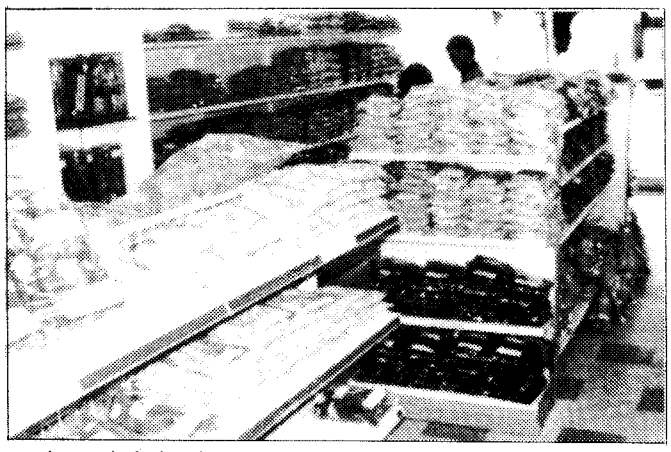
경동 약령시 동방약성과 자매결연

유통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협력

민간차원 외교확대·한의약 발전전기



◇국내시판 한약재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약령시장과 중국 최대 약재시장인 동방약성이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간의 보건의료 향상과 한의약교류 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동약령시협회(회장 尹永鎭)는 지난달 18일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중국 안국시 동방약성 관리처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경동약령시협회와 중국동방약성은 오는 2천년까지 5년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단체가 한약재 생산과 무역 및 한의약연구를 위한 한의약업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단 경동약령시 지역문화행사 및 동방약성 문화행사에 쌍방이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각종 행사 및 정보교류를 통해 한중의약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노승우 국회의원, 박훈 동대문구청장과 劉彦華안국시시장 등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영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재 집산지인 중국 동방약성과 자매결연을 계기로 경동약령시가 세계 한약재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동방약성은 한약재의 집산지인 안국시에 위치, 약 1천년 전부터 전문 한약재시장으로 형성돼 최근 중국 정부는 동방약성관리처를 두어 6백여억원을 투입해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동방약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시판 한약재 중금속 기준치 밑돌아

한약규격화, 제조행위 아닌 「단순절단포장업」으로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상용 한약재와 중국 등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시판중에 있는 한약재 등은 그동안 우려되었던 것처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재 중에서 농약성분의 검색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도 일부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배추, 양배추, 양파, 고추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농산물의 기준치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한약재 42종과 수입한약재 54종 그리고 18종의 식용농산물 등 총 1백14종을 대상으로 수은, 납, 비소, 카드뮴에 대한 잔류량을 조사한 시판 한약재중의 중금속 및 농약 조사연구」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약재중에서는 수입된 사인(砂仁)과 오수유에서 각각 0.12PPM, 0.11PPM의 수은(Hg)이 검출되어 조사된 다른 한약재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이 수치는 콩나물의 0.1PPM, 해산물과 어패류 0.7PPM보다 낮은 수치로써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금속의 허용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한약규격화는 일반 양약제조과정과 달리 식물의 뿌리·줄기·열매 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는 단순한 과정에 복과하므로 제조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한 제조행위가 아닌 단순절단포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

한약재 수입업계 및 도매업계 일부에서는 또한 한약전래의 관습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유자격자면 누구나 규격화에 참여함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격화정책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96년 1월1일 규격화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련업계에서는 한약의 규격화를 제조행위로 간주하지 말고 「단순절단포장업」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약용작물학회 제4회 학술발표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오는 9월2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관에서 제4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에서는 육종 재배 품질 분야 등 26개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

사설

공매처분된 밀수품

밀수품으로 압수된 황기 70톤이 최근 공매입찰을 통해 처분됐다고 한다. 문제는 단순히 '밀수품 70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매처분됨으로서 물 밑 거래 되고 있는 배후의 더 많은 밀수품의 유통까지도 합리화시킬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즘 항간에는 1천톤에 달하는 수입황기가 밀수돼 국내 생산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구천5백원이라는 단가에 시중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는 비단 황기뿐이 아니다.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금하고 있는 많은 한약재들이 식품원료로 반입되어 불법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선해야할 법의 허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압수된 밀수품이 왜 공매처분 되었는가 이다.

국내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수입 및 유출로 인하여 압류된 한약재를 공매 처분하여 시중에 유통시킴은 한약재 수입한도량 운영취지에도 배치되는 사항일뿐 아니라 더 많은 밀수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구실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2년전인 지난 93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가 보낸 공문에서도, 「부득이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우리부 및 재배농가단체인 한국생약협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 그 결과에 따라 공매가부를 결정하는 등 재배농가의 피해을 최소화하는 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수확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밀수입 한약재 압류품은 마땅히 폐기처분돼야 할 것이다.

城안의 규격화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생약협회가 건의한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내용인즉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생산 가공 포장한 것도 약효능을 표기하지 않은 이상 공판장이나 재래시장에 관행대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입장에서 보면 한시름 놓을 법도 하고 이만큼의 영역이라도 확보해낸 것은 지난 한해 생약협회 임직원들을 비롯 산하회원들의 악전고투의 성과물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인정한 '자유로운 판매'는 어디까지나 규격화라는 법 테두리 밖의 소관이다.

회신내용에서 복지부는 농민이나 농민단체 등에게 의약품(규격품)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규격에 적합한 한약재를 생산 한약판매업자에게 넘길수는 있지만 농민이나 단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규격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서 원료의약품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유통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규정이 정한 한약재의 규격화란 일반 양약의 제조과정과는 달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을 세척 건조 절단 포장하는 단순가공과정에 불과하다.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원료의약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것은 규격품으로, 농민이나 단체가 생산할 것은 농산물로 각각 유통시킨다는 이원론적사고방식을 고집하는 한 유통일원화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격화 자체도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규격화의 실체는 城 안의 일이고 농민들은 여전히 城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규격품은 '누가' 만들어 내느냐 보다는 '어떻게' 만들어 유통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중국 약초 산지 시찰단 귀국

본 협회 전근택 사무국장을 비롯 회원 11명은 중국 동방약성 안국시 시장 유언화외 관계관들의 따뜻한 환영하에 시호, 산약, 황기, 황극, 더덕, 두충외 다수 품목 재배지 및 중약재 시법포 약 3백여종을 견학하고 향후 국내 재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8월30일 무사히 귀국.

내방

△강원대학교 안상득 교수 △김종근 이사 △장지홍이사 △박종연 이사 △전주시 완주군 이정 공판장장 △대전광역시 서구 김영신 사무소장 △경기 연천군 김인욱 공판장장 △경기 구리시 이성덕 사무소장 △강원 춘천시 허수 사무소장

인사

「免」

▲권응화(경북 안동군 사무소장) 95년 7월31일부 ▲박건훈(강원 홍천군 사무소장) 95년 7월31일부

「任」

▲이강섭(경기 파주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95년 8월1일부 ▲박죽랑(강원 철원군 공판장장) 95년 8월1일부 ▲최태완(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판장장) 95년 8월1일부 ▲김석화(강원 홍천군 사무소장) 95년 8월1일부 ▲박인호(대전 대덕구 사무소장) 95년 8월1일부 ▲박미선(본부 사무국 경리사원) 95년 9월1일부